



## 협회 1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에 마쳐



대한에이즈예방협회(회장 김모임)는 지난 10월 7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관련 부처 및 관련 민간단체 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언론재단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모임 회장의 기념사,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한 오대규 보건증진국장의 치사,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김정수 회장의 축사, 협회 정광모 명예회장의 격려사, 후원사에 대한 감사패 증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감사패는 그동안 협회의 에이즈 예방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주식회사 녹십자, 한국애보트주식회사, 한국엠에스디주식회사가 받았다. 이어서 비디오시청을 통해 협회 1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에이즈홍보 명예대사인 패티 김이 참여하여 에이즈사업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하였다. 협회는 1993년 10월 7일 창립되어 국내 에이즈 예방과 퇴치, 감염인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힘써 왔다.

## 감염인 동료상담사업 본격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감염인 동료상담 사업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에이즈는 질병 자체보다 사회적 편견과 냉대로 인해 감염인사실에 정신적 충격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감염인들은 방향과 좌절의 긴 시간을 거친 후 일상으로 돌아오는 행동양상을 보인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신규감염인의 심리적, 육체적 충

## 동아시아 HIV네트워크 결성, 연세의대 에이즈연구소



동아시아의 에이즈문제를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5개국의 의학자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HIV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지난 9월 26일 기념 심포지엄이 있었다.

연세의대 에이즈연구소장 김준명 교수는 "에이즈는 다른 질병과 달리 지역, 인종, 환경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가깝고, 비슷한 유전자구조를 가진 국가들간의 에이즈 공동대응은 필요하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동아시아 네트워크는 감염인의 치료개발을 위해 의학정보 교류와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에이즈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에 약 7,000만 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 아프리카에서 창궐하던 에이즈는 이제 그 위세가 아시아로 선화하고 있다.

격을 완화시키고 빠른 시일 내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이미 같은 경험을 한 감염인 동료상담원을 배출하여 그들의 상담을 돕고 있다.

감염인 동료상담원들은 전국 보건소와 연계하여 신규감염자의 역학조사나 상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동료상담원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함께 에이즈 사업의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대한에이즈연구회’ 11월 발족

에이즈 치료·연구를 위해 국내 임상의학자·자연과학자들이 참여하는 대한에이즈연구회가 11월 말 발족할 예정이다.

연세의대 에이즈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1회 에이즈 학술 심포지엄에서 김준명 교수(연세의대)는 국내 에이즈 연구가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연구기금 및 연구 검체의 절대적 부족을 꼽은 가운데 에이즈 문제는 임상의학자와 자연과학자들의 공동연구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점에서 에이즈 연구회 발족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와 검체 공유를 통해 연구기금의 확보 및 연구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에이즈연구회가 발족돼, 에이즈연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HIV감염자가 확산일로에 있는 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외항선원, 윤락여성과 같은 고위험군에서 점차 사무직, 주부 등 일반 인구로 확대되고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적극적인 HIV 감염예방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내 감염경로가 이성간 접촉이 50% 정도, 동성간 성접촉 34%로 추계되고 있으나 실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감염자들의 경우 동성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8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성애자의 HIV 감염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국내 HIV의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준명 교수는 “실제 진료 경험에서도 이성간 성접촉보다는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밝히고 이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만큼 예방교육을 통해 전파경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학신문 2003. 10.16]

## 英 법원 “HIV 유포는 생물학적 가해행위”

보균자임을 숨기고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옮기는 행위는 ‘생물학적 가해행위’라는 판결이 영국에서 나왔다.

2명의 여성에게 HIV를 옮긴 혐의로 법정에 선 모하메드 디카(38)에 대한 재판에서 남녀 6명 동수로 구성된 배

심원들은 “생물학적으로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가했다”며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디카는 정관절제술을 받아 콘돔 사용이 필요없다고 속여 여자친구에게 HIV를 감염시킨 뒤 2명의 아이를 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꾀어 장자리를 같이 해 역시 HIV를 옮겼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에서 성병 감염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37년만의 일이며, 고의적인 HIV 바이러스 유포가 유죄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2003.10.14]

## 포경수술 안받으면 에이즈 감염위험 높아져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은 받은 남성보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8배나 높다고 한 연구보고서가 주장했다.

볼티모어 소재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은 이 보고서에서 인체의 속피부는 겉피부보다 약해 에이즈의 원인균인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감염의학과 스티븐 레이놀즈 박사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폭발적인 에이즈 증가율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수술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소아과 아카데미는 합병증을 우려해 더 이상 이 수술을 유아들에게 권유하지 않는다.

한편 이 보고서는 포경수술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간의 일반적인 성병발병비율차이도 담고 있다. 매독, 임질, 음부포진 등의 성병 역시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그룹이 발병 빈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주목해야 할 만큼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번 조사는 인도의 퓌 시 소재의 병원에서 93년부터 2000년까지 성병치료를 받은 인도남성들의 에이즈 감염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큰 의학조사의 한 부분이다. 이 보고서는 약 2300명의 인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담고 있다. [경향신문 2003.10.10]

## 청소년 하루 6,000명꼴로 에이즈 감염

아시아 청소년층에서 에이즈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개한 '청소년 건강·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서아시아 청소년(15~24세) 중 1백10만 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이즈 창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8백60만 명)에 이어 지역별로 가장 많은 수치다.

보고서는 또 전세계 청소년 중 14초에 1명, 매일 6,000명 꼴로 에이즈에 추가로 감염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에이즈 감염자 수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UNFPA측은 "이 같은 결과는 세계 각국에 울리는 경종"이라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는 지구촌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세계 청소년 인구는 12억 명으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들 중 87%는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에이즈 확산의 주원인으로는 빈곤이 꼽혔다. 청소년층 감염자 중 대다수는 여성으로, 최빈국에 사는 일부 소녀들은 학비 마련이나 가족 부양을 위해 윤락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나이 많은 남성과 결혼한 사춘기 소녀들은 콘돔 사용에 관한 주도권을 쥐지 못해 에이즈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확한 성교육과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관계가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조사대상인 107개국 중 44개국은 학교 교육과정에 에이즈 교육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경향신문 2003.10.9]

## “남아공軍 20%이상 에이즈 감염”

세계 최대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국 중 하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군대의 5분의 1 이상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모시우 오아 레코타 남아공 국방장관이 밝혔다.

레코타 장관은 이날 남아공 군인의 20~22%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면서 정부는 군대 등에서의 에이즈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 소재 한 민간 연구소도 사상군의 23%, 전체 군의 20%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남아공 전체 국민의 평균 에이즈 감염률 11%를 훨씬 웃도는 것이어서 군전력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남아공 군대의 높은 에이즈 감염률과 관련,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의 군사전문가 하이트만은 군대의 약화된 면역체계로 인해 질병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는 만큼 군전력의 심각한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남아공은 전체 국민의 11% 가량인 470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곳으로 매일 600~1천 명이 에이즈나 합병증으로 숨지고 있는 상태이다. [연합뉴스 2003.10.8]

## 중국, 에이즈 1년간 140% 폭증

중국 정부는 불과 1년만에 중국 내 에이즈 환자 수가 무려 140% 폭증했다고 '라디오 호주'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 같은 수치는 유엔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 에이즈가 전염병처럼 폭발적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한 후 1년만에 드러난 것이라고 이 방송은 말했다.

국무원 위생부(衛生部)는 현재 중국에는 8만 명의 에이즈 환자를 포함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84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1985년 중국에서 첫 에이즈 환자가 나온 이후 약 22만 명의 중국인들이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연합뉴스 2003.10.6]

## 일부 대형병원 선수금 요구

일부 대형병원들이 법률로 금지된 입원보증금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선수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수술비 지급에 관한 재정보증금과 보증인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 측은 서울 A병원과 B병원 등이 백혈병과 에이즈 환자 등에게 2백만 원에서 3천만원의 입원 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어기는 것이며 재정보증인을 세

우지 않은 환자에게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도 의료법 상 진료 거부 금지 항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입원비 보증문제는 병원들과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며 이를 개별환자들에게 전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YTN 2003.9.25]

## 에이즈 백신 개발 낙관

에이즈 퇴치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에이즈 백신 개발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에서 개막된 '에이즈 백신 개발을 위한 2003년 학술회의'에서 에이즈 연구자들은 HIV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 의과 대학의 노먼 레트빈은 에이즈 연구자들이 아직 백신의 항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를 알게 되면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HIV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단기간에 에이즈 예방 백신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레트빈은 치료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그는 "HIV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의 영향을 밝혀내는 방향의 백신개발 전략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만약 우리가 킬러 T세포를 백신을 통해 유도해낼 수 있다면 에이즈 감염자의 병세 진행을 크게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3.9.19]



## 보건복지부, '감염 혈액' 사고 땀 혈장 전량폐기

보건복지부는 최근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 유도되는 등 혈액관리에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조만간 혈액사고 대처요령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혈액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 기관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내년부터 혈액검사 방식을 현행 효소면역검사법에서 핵산증폭검사법으로 바꿔 혈액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바이러스 잠복기를 절반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 혈액검체보관소를 설립해 혈액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혈장 보관체계(Look-Back System)'를 조속히 구축해 대형 혈액사고의 원인이 되는 혈장을 최소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혈액사고시 관련 혈장을 전량 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2003. 9 14]

## 에이즈 환자, 사스에 감염 안된다?

사스 환자와 가깝게 접촉한 에이즈 환자들은 사스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에이즈 치료제를 사스 퇴치제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사스가 확산된 지난 봄 중국 광저우 병원에서 사스 환자와 같은 층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에이즈 환자 19명이 모두 사스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제1회 서울 에이즈 걷기대회

한국UNAIDS정보센터(KUISC)는 국내 에이즈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난 10월 19일 남산국립극장을 출발하여 백범광장에 이르는 제1회 서울 에이즈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에이즈 관련 단체 외에 주한대사들과 대사관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홍보하였다.



광저우 병원 관계자는 에이즈 환자 가운데 15명은 한달 이상 사스 환자와 같은 층에서 지냈으면서 이 가운데 1명만 마스크를 착용했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자의 몸에서는 사스 바이러스가 복제되지 않는다는 가설과 함께 에이즈 치료제가 사스를 퇴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YTN 2003.9.13]

## 유산균 AIDS 막아

유산균이 에이즈(AIDS)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진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여성의 질(腔)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의 유전자를 조작, 에이즈 바이러스 활동을 방해하는 단백질을 분비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변형된 유산균이 시험관 실험에서 에이즈

감염률을 최소 50% 이상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여성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좌약(座藥) 형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9~10월)

<b>- 본부후원금 -</b>			
협유식 30,000	유금숙 20,000	박석갑 300,000	
김 덕 100,000	송준희 20,000	강철언 100,000	
오원의 50,000	강민형 10,000	이세운 10,000	
박진건 20,000			
<b>합계 660,000원</b>			
<b>- 부산 -</b>			
장병찬 10,000	박원주 39,000	박경희 200,000	
조영주 100,000			
<b>합계 349,000원</b>			
<b>- 울산경남 -</b>			
윤득주 70,000	김영실 10,000	문하나 10,000	
이남주 10,000	전미선 10,000	박문진 10,000	
차민자 10,000	이혜민 10,000	김양희 10,000	
송중호 10,000	성주군보건의 94,500	신여중학교 50,000	
<b>합계 304,500원</b>			

## 도 와 드 립 니 다 감 염 인 동 료 상 담 원 이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감염인 재활 사업의 일환으로 감염인 동료상담원을 에이즈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감염인들은 신분노출 문제 등으로 비감염인보다는 같은 감염인에게 보다 신뢰를 느끼며, 보건소 방역업무가 과중하여 에이즈 감염인 상담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감염인들이 부담없이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감염인 동료상담원이 도와드립니다.

이 사업은 감염인 동료상담 1회당 40,000원의 상담료가 지급되는 감염인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에이즈의 피해자인 감염인들이 에이즈 문제의 해결자로 앞장서 주도적으로 에이즈사업에 참여하고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합니다.

### \* 상담원이 하는 일

- 동료 감염인 상담
- 신규감염 발생시 역학조사 상담에 동행
-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가 진행하는 매 3개월의 정기상담 보조 또는 대행 등

\* 동료상담원교육과 워크숍을 매해 실시할 예정이며 보건소 담당자와 감염인 상담의 협력체계를 구축 합니다. 상담료는 협회에서 지급합니다.

### \* 상담원 파견절차

각 보건소나 병원에서 협회로 요청하면 해당 지역의 상담원을 파견해 드립니다.

### \* 문의안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화 : 02-2875-0806, 2124  
 팩스 : 02-2875-2114  
 홈페이지 : www.aids.or.kr  
 담당자 : 신수련, 김모란